

서학개미, 美 증시 강세에 고위험 레버리지 ETF 매수 급증

해외주식 Click

채권가격 상승 노린 美 장기채 선호
마이크로소프트 3680만달러 몰려
“美 증시 숨 고르기 들어갈 수도”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금리 인하와 12월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에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28일~12월 4일)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시 3배 수익을 얻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퍼 3배 ETF(SOXS)를 1282만달러 순매수했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자 조정이 올 것으로 보고 반도체 하락에 공격적으로 배팅을 했으나 오히려 반도체 주는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81% 증가했다.

서학개미는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 국채 3배 ETF’(TMF)도 673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연준 내 매과 성향 인사로 꼽히던 인사들도 최근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 고금리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린 미 장기채 선호 기조는 이어졌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하락 시기 현재의 높은 이자를 오래 받기 위해 장기채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도 서학개미는 직전주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3670만 달러가 몰려 2주 연속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상승세를 보인 미 증시에 서학개미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

인 12월 산타렐리를 앞두고 증시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증시가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미국증시가 최근 강세를 보인 만큼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종만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 국채수익률하락과 양호한 쇼핑 시즌 초기데이터가 주식시장을 지지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강한 반등을 보인 만큼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지표와 강한 쇼핑 시즌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I 생태계 선순환구조에서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과 보수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B증권, 하반기 IPO 주관실적 ‘쑥’

12건 IPO 주관실적 달성

KB증권이 뒷심을 발휘하며 2023년 하반기 기업공개(IPO) 주관실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압도적인 격차로 IPO 주관실적 1위를 기록했던 KB증권은 금년 9월까지 리츠 및 스펙을 제외하고 IPO 주관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연이어 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어느덧 연말까지 12건에 달하는 IPO 주관실적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주관실적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IPO 딜 모두 공모가 밴드 상단이상으로 형성됐고, 상장 당일 수익률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질적으로도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디지털보안기업 ‘한씩’부터 R F필터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 협동로봇 종합솔루션 기업 ‘두산로보틱스’, 건축용 테크플레이트 제조기업 ‘에스와이스틸테’, 업계 최초의 탄소배출권 기업 ‘에코아이’ 등 다양한 산업군 대상으로 IPO를 성공하며 양적·질적으로 우



KB증권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주관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수한 트랙레코드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소재·부품 기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LS머트리얼즈 역시 지난달 28일까지 수요예측을 마치고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6000원으로 발행가격을 확정했다. 현재 이달 1일과 4일, 양일 간 청약률 100%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 전문기업인 DS단석(단석산업)의 경우 바이오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고 배터리 사업 대규모 시설투자 등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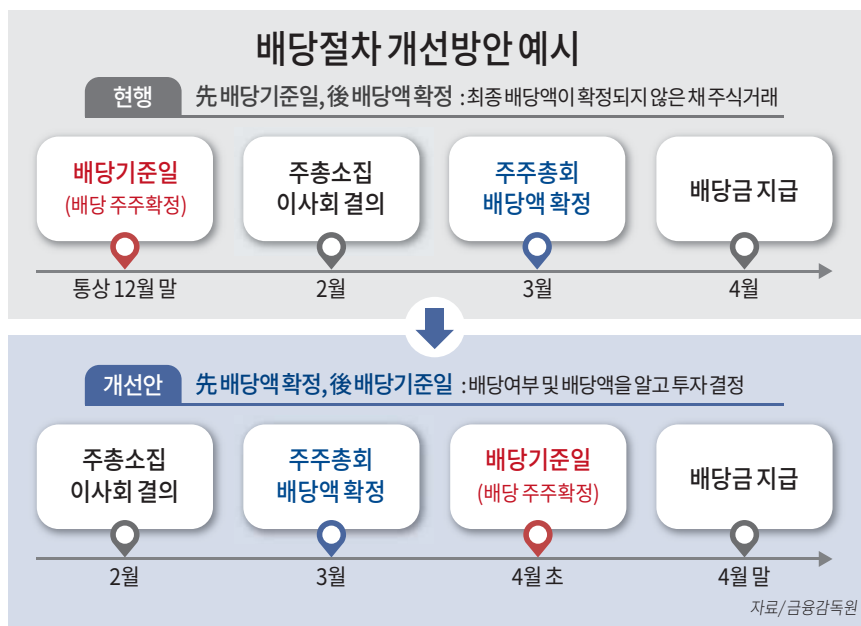
“내년부터 배당액 보고 주식 투자하세요”

금융위·법무부,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배당기준일,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4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상장 회사들은 ‘선(先)배당액확정, 후(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결산배당 시에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당기준일이 분기말로 확정되고 있으나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배당 관련 투자의사를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

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투자자, 부동산·사모펀드 관심 높아”

수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조사

국내 투자자들은 당분간 현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에 나서더라도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공개한 ‘슈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2023’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과 사모펀드·부동산 등 사모 자산에 투자 매력력이 더 높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매력도가 커진 투자 테마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사모 자산(사모펀드·부동산·인프라·사모 부채 및 신용 등) ▲디지털 자산 등을 꼽았다. 특히 사모자산 분야 중에는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29%), 부동산(25%), 사모펀드

(17%)에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사모 자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시장 진입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진입 장벽으로는 ▲해당 자산군의 낮은 투명성(73%) ▲자산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69%)을 꼽았다.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 중 11.7%를 사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에 있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27.8%의 자금을 사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해 전문 지식 보유 여부가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투자자들도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투자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안상민 기자 smahn1@

교보증권,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 구축

테사와 공동 마케팅 등 업무협약

교보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와 토콘증권(STO) 사업 상호협력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교보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 김형준 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블루칩 스테디셀러 작품을 기

반으로 한 전용투자 상품 출시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 구축 및 서비스 연동 ▲공동 마케팅 제휴 및 미술품 투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양사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 올해 DT전략부를 신설하고 토콘증권(STO), 탄소배출권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유일 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지난 1일 1002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4일 기준 순자산액은 1021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 427억원에서 139.11%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내 상장 원자재 ETF의 평균 순자산액 증감률(3.81%)을 압도했다. 2021년 12월 상장한 해당 ETF는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KRX 금현물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해당 지수는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 1kg 가격

수익률에서 보관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반영해 산출한다.

순자산액의 빠른 성장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 덕으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해당 ETF를 249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원자재 ETF의 개인순매수 평균 금액(2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